

제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입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어떤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 고등학교에 와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께 저와 제 친구들이 만든 정말 멋진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를 소개합니다.

오토마타가 뭐냐고요? ① 모형 딱따구리를 꺼내 손잡이를 돌리며)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앞뒤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들어 본 적 있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만들기 시간에 대부분 공작 키트로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오토마타는 크랭크, 기어, 캠 같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 장치를 통해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조형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작 키트를 구입해서 주어진 부품을 설명서대로 조립하는 동아리가 (두 팔을 교차해 가위표를 만들며) 아닙니다. 우리 동아리는 오토마타의 설계도를 그려서 부품을 만들어 조립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로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 보는 동아리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코딩을 활용한 오토마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동영상을 띄우고) 작년 □□시 오토마타 경진 대회에 나온 작품입니다. 버튼을 누르니까 코딩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렇게 멋진 오토마타를 여러분과 직접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거나 발명을 좋아하는 분, 미술을 좋아하거나 프로그래밍에 도전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 활동하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각종 부품을 직접 만들고, 메이커실에서 그 부품들을 조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벌써 담당 선생님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 3D 프린터와 메이커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두었습니다. 게다가 담당 선생님께서 (엄지를 치켜들며) 코딩계의 전설이라 하십니다. (웃으며) 오토마타 동아리에 들어오면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한 사람이 최소 한 작품 이상을 만들어 10월에 열리는 학교 축제 때 전시하고자 합니다. 두세 명씩 모여 공동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니 진정한 협업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에 가입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1학년 5반에서 저 ○○○을 찾아 가입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각종 문의도 환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뜻을 풀이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청중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 ③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①과 ②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을 활용해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②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드러냈다.
- ② ①을 활용해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②을 활용해 동아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 ③ ①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 주고, ②을 활용해 오토마타 작품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였다.
- ④ ①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을 위한 준비물을 알려 주고, ②을 활용해 오토마타 작품이 지닌 특징을 보여 주었다.
- ⑤ ①을 활용해 오토마타 부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②을 활용해 오토마타에서 코딩이 중요한 까닭을 강조하였다.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3D 프린터나 메이커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졌어. 먼저 화요일, 목요일 방과 후에 나에게 다른 일정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어.

학생 2: 오토마타 동아리에서 코딩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학교에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다른 동아리는 없는지 찾아 봐야겠어.

학생 3: 미술을 전공할 생각인데, 이 동아리의 장점이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오토마타와 미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 본 후에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 중 일부를 동아리 가입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말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를 따져 보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4~7] (가)는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교지에 실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 안녕하세요. 저는 ○○고에 다니는 △△△입니다.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석물 등에 대해 학예사님의 설명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학예사 : 반갑습니다. 직접 보며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종이 모셔져 있는 능까지 걸으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학생 : 네, 좋아요.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 되었는데요, 등재 기준의 내용 중에서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예사 : 조선은 자연 훼손과 인위적인 구조물 배치를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왕릉을 조성했습니다. 봉분을 수십 미터 높이로 조성하거나 지하에 궁전과 같은 공간을 만들기도 했던 중국과 비교하면,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성격이 돋보입니다.

학생 : 그렇군요. 예전에 권원릉이나 광릉에 갔을 때도, 왕릉이 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곳 선릉도 자연 친화적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 니다.

학예사 : 기능적 필요에 의한 건축물만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했기에 그런 것이지요.

학생 : 조선 왕릉은 진입 공간, 제향 공간, 능침 공간으로 구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계 유산 등재 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학예사 : 여기 선릉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지났던 홍살문까지가 진입 공간, 홍살문에서 여기 정자각까지가 제향 공간, 그리고 저 위가 왕릉의 핵심 공간인 능침 공간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정자각까지 오는 동안 능침 공간이 잘 보였나요?

학생 : 아니요. 능침 공간은 지대가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 데도 정자각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학예사 : 바로 그런 점이 조선 왕릉이 가진 공간 구성의 독창 성과 관련됩니다. 능침 공간으로 올라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개 정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능침 공간은 참배객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능침 공간에서는 왕릉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 지면 높이를 다르게 하여 조망 범위가 다르도록 했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제향 공간의 건축물인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능침 공간을 향한 참배객의 시야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조선 왕릉의 독창성입니다.

학생 : 조선 왕릉은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 으로 공간의 위계를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학예사 : 맞습니다. 잘 이해했네요.

학생 :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능침 공간에 배치 된 석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예사 : 지금 보이는 것처럼 능침 공간에는 예술적 가치 가 높은 석물이 배치되었습니다. 봉분에 병풍석과 난 간석을 둘러고, 봉분 주변에 혼유석, 양 모양과 호랑 이 모양의 석상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명등, 문 신과 무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배치하여 질서 있는 공간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A]

학생 :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석물은 공간미를 위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물의 예술적 가치가 높 다 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학예사 : 왕릉에 배치된 석물은 능침을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고유한 예술미를 바탕으로 왕릉 의 장엄함을 강조하는 격조 높은 조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인상은 사각 기둥의 느낌이 나도록 형태가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수호신상과 같 은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 예술미를 드러냅니다.

[B]

학생 : 덕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 셔서 감사합니다.

학예사 :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조선 왕릉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과 관련된 기준도 있 으니 더 살펴봐도 좋겠네요.

학생 : 네, 잘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나)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 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의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 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 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 친화적 원칙을 지켜 왔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왕릉은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하는 공간 구성의 독창성을 드러낸다. 조선 왕릉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만들고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제향 공간과 능침 공간의 조망 범 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의 위계를 조성하였다.

능침 공간은 왕의 공간인 상계, 신하의 공간인 중계와 하계로 영역이 나뉘어 영역별로 다양한 석물이 배치되었 다. 상계의 봉분에는 불교적 장식 요소를 새겨 넣은 병풍 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봉분 주변에는 영혼이 노니는 석상 인 혼유석, 악귀로부터 능을 수호하는 양 석상과 호랑이 석상 등을 두었다. 중계에는 어두운 사후 세계를 밝히는 장명등, 문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하계에는 무신 형 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두었다. 이들은 조선의 내세관과 함께,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 왕조의 지향을 드러낸다.

[C]

조선 왕릉이 잘 보존되고 살아 있는 유산으로 평가 받는 이 유는 조선의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례 과정을 담은 『국장도감의궤』, 왕릉의 조성 과정을 담은 『산릉도감의궤』 등의 기록물들은 왕릉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종묘에서 정례 적으로 봉행되는 제례 의식은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전통 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다.

4. (가)의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예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③ 학예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하지 확인하고 있다.
- ④ 학예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질문을 덧붙이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B] 모두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이전 답변을 인용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A], [B] 모두에서 학생은 학예사가 제시한 사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례를 요청하고 있다.
- ③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보충하고 있다.
- ④ 학예사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반복하고 있다.
- ⑤ 학예사는 [A]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잘못된 이해를 [B]에서의 설명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6. <보기>는 (나)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보기>에서 (나)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를 글의 첫머리에 밝히며 시작해야겠어.

ㄴ.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되는 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야겠어.

ㄷ. 조선 왕릉에 공간 구성의 독창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에 나타나는 공간의 위계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ㄹ. 조선 왕릉과 관련한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왕릉과 관련된 기록물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례 의식의 사례를 찾아 제시해야겠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C]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예술미를 분석하고 왕릉들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② 능침 공간의 특정 석물에 대한 평가들을 소개하고 평가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형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시기별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 ⑤ 능침 공간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배치된 석물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8~10] (가)는 작문 상황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채식하는 날'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한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 전체
- 예상 독자 분석 결과: 설문 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이 '채식하는 날'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 '채식 급식은 맛이 없다.', ㉡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채식하는 날' 도입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등이 제시되었다.
- 내용 구성 방안: 채식이 건강에 주는 이점과 ㉤ 환경에 기여하는 점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한다.

(나) 학생의 초고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매주 월요일에는 모든 학생에게 육류, 계란 등을 제외한 채식 중심의 급식이 제공된다. 그런데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약 65%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 기후 위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식하는 날'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채소류 섭취가 늘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급식 시간에 육류를 중심으로 음식을 골라 먹는 경향이 강하다. 잔반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영양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학생들이 육류 중심으로 영양소를 섭취한다며 걱정하셨다. 그러면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맛있는 채소류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학생들도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채소류 음식을 즐기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식습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육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막으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채식 중심의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한 공공 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축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육류 소비를 적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막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버리고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가)를 고려하여 학생이 구상한 내용 중 (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채식 식단의 사례를 제시한다. ①
- ㉡을 고려하여, 채소류 섭취를 늘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됨을 밝힌다. ②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급식 실태를 밝히며 ‘채식하는 날’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③
- ㉣을 고려하여, ‘채식하는 날’의 운영 주기와 식단에 포함되지 않는 식재료를 설명한다. ④
- ㉤을 고려하여, 육류 소비를 줄이면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⑤

9.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전문 서적

육류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고, 육류에 거의 없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 섬유 등은 부족하게 된다. 지방의 과잉 섭취나 특정 영양소의 부족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 『영양학』 -

ㄴ. 인터뷰 내용

“우리 시에서는 1년 간 590여 개의 공공 급식소에서 ‘고기 없는 화요일’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755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덕분에 채식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 과제중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시 정책 홍보 담당자 -

ㄷ. 통계 자료

축산 분야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며, 이는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 -

<그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

- ① 2문단에 ㄱ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출처도 함께 밝혀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② 2문단에 ㄴ을 활용하여 채식이 건강과 식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사례를 제시한다.
- ③ 3문단에 제시된 공공 기관의 사례를 ㄴ의 수치를 들어 구체화한다.
- ④ 3문단에 ㄷ의 <그림>을 삽입하여 통계 자료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 ⑤ 3문단에 ㄴ과 ㄷ을 활용하여 제도적 변화보다 개인의 노력이 중요함을 드러낸다.

10. <보기>는 (나)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을 수정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초고를 써서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학교 급식은 곡류, 육류, 채소류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 문장을 수정해야 해요.

- ①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 음식보다 채소류 음식이 학생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채소류 음식을 더 많이 먹이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②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 음식을 접할 기회를 늘려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게 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③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채소류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④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만 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어 학교 급식의 전반 중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⑤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 형성이 건강 증진과 기후 위기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한다. ‘표준어 규정’은 원칙적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단모음으로 발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라 하는데, 이중 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인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모음이다. 예를 들어 이중 모음인 ‘ㅑ’의 발음은, ‘ㅣ’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j]’ 뒤에서 ‘ㅏ’가 결합한 소리이다. ‘ㅑ’와 마찬가지로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j]’와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가 결합한 소리이다. ‘ㅓ’나 ‘ㅕ’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반모음 ‘[w]’도 있는데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w]’와 단모음 ‘ㅏ, ㅑ, ㅓ, ㅕ’가 결합한 소리이다.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서 결합한 소리인 ‘ㅑ’를 제외하고, 이중 모음의 발음은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서 결합한 소리이다.

‘ㅑ’와 ‘ㅓ’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ㅑ’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ㅓ’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ㅣ’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한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ㅑ’와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ㅍ’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 ② ‘ㅂ’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 ③ ‘ㄷ’의 발음은 반모음 ‘[j]’ 뒤에서 단모음 ‘ㄷ’이 결합한 소리이다.
- ④ ‘ㄱ’의 발음은 단모음 ‘고’ 뒤에서 반모음 ‘[j]’가 결합한 소리이다.
- ⑤ 반모음 ‘[w]’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룬다.

12. <보기>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니’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더라고. 그러면 ‘참외’는 [차외]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할 수 있겠어.

학생 2: 그래, 맞아. ‘표준어 규정’에서는 ‘기’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의 이중모음 발음은 ‘냐, 비, 키, 퀘, 가, 내, 꼬, 거, 제, ㅠ, -’의 발음 중에 ㉡ .

- | | |
|--------|-------------|
| ㉠ | ㉡ |
| ① [차뻬] | 포함되어 있지 않아 |
| ② [차뻬] | ‘니’ 소리에 해당해 |
| ③ [차뻬] | ‘기’ 소리에 해당해 |
| ④ [차메] | 포함되어 있지 않아 |
| ⑤ [차메] | ‘니’ 소리에 해당해 |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 개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 준 일을 잊지 않았다.

㉣ 날이 추워지면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

㉤ 수만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 ① ㉠: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안은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 ‘그가 우리를 도와 준’이 안은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 ‘날이 추워지다.’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군.
- ⑤ ㉤: ‘관객들이’가 주어이고 ‘메웠다’가 서술어인 홀문장이군.

14. <보기 1>은 국어사전의 일부이고, <보기 2>는 원고지에 쓴 글을 고친 것이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드리다 [드리다] ㉠ [드리어(드려), 드리니]
 【...에 /에게 ...을】
 [1] ‘주다’의 높임말.
 [2]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하다.

들이다 [드리다] ㉡ [들이어(들여), 들이니]
 [1] 【...을 ...에】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게 하거나 오게 하다.
 [2] 【...에 /에게 ...을】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

< 보기 2 >

새	해	첫	날	아	침	,	친	구	들	과	함	께	선	생					
님	데	을	방	문	했	다	,	선	생	님	께	서	는	우	리	를	사	랑	방
에	㉠	들	이	면	서		매	우	기	뻬	하	셨	다	,	우	리	는		
함	께	세	배	를	하	고		선	생	님	께	감	사	의	마				
음	을	담	은	편	지	를	㉡	드	려		선	생	님	을	흐	뭇			
하	게	했	다	,	정	성	을	㉢	드	려		쓴	편	지	였	다			

- ① ㉠은 ‘들이다’[1]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 ② ㉠을 포함한 문장에 ‘우리들’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기 때문이군.
- ③ ㉡과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의 ‘드리다’는 모두 ‘드리다’[1]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 ④ ㉢은 ‘들이다’[2]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들여’라고 고쳐 써야 하는군.
- ⑤ ㉠과 ㉢은 사전에서 각각의 표제어 아래 제시된 여러 의미 중 하나로 풀이되는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 임금의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에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에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 정도전, 『삼봉집』 -

ㄴ. 청컨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삼분의 일 줄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해서 모든 팔도의 진상·공물들도 삼분의 일 줄이십시오.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치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이, 『율곡전서』 -

ㄷ.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어 면포의 가격이 뛰어 오르는데 수백 리 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전 중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하여 군포를 바친다.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

- ① ㄱ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 ② ㄴ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 ③ ㄷ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 ④ ㄱ과 ㄷ은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를 보여준다.
- ⑤ ㄴ과 ㄷ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안된 방안이 해당한다.

19.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후 활동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보자.

[자료]

조선 시대의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결론]

[자료]와 [A]는 조선 시대의 (㉠)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① 백성이 교육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는지
- ②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
- ③ 교육 방식이 현대적으로 계승되었는지
- ④ 신분 질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 ⑤ 백성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했는지

2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따라야
- ② ㉡: 가다듬는
- ③ ㉢: 끊임없이
- ④ ㉠: 결맞은
- ⑤ ㉢: 바탕을 둔

[21~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 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손실 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행정 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 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 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할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

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 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 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재산권: 재산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처분권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21.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 ② 공용 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 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 ③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④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 기관이 사설 연수원을 일정한 기간 동원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

2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 ③ ㉠은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④ ㉠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23.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산권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 없이 제한해야 하는 권리이다.
- ② 공용 침해 규정과 손실 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 ③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될 수 있다.
- ④ 행정 작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 ⑤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24.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 재판소는 분리 이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①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겠군.
- ②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겠군.
- ③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였겠군.
- ④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하다고 판단하였겠군.
- ⑤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겠군.

25. 문맥상 ㉠~㉣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행정 작용으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
- ② ㉡: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하는 규정과
- ③ ㉢: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 안에
- ④ ㉣: 경계 이론의 입장과 분리 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 ⑤ ㉤: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26~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하는데,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핵분열이라고 하고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이 결합하여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한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 원자핵의 질량은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다. 이처럼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든 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간의 전환이 가능하고, 이때 에너지는 질량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한편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가해야 하는 에너지이다.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그 값은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는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거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된다.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 우라늄 - 235(²³⁵U) 원자핵을 사용하는 핵분열 발전의 경우, 우라늄 원자핵에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질량수가 작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들로 분열된다. 이때 2~3개의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 원자핵에 흡수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으로 인해 전환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핵분열 발전에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 중성자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중성자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를 느리게 해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한편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봉을 사용한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로, 핵분열에 관여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하여 급격한 연쇄 반응을 방지한다.

핵융합 발전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태양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핵융합이다. ㉡ 수소(¹H) 원자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은 주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먼저 수소 원자핵 2개가 융합하여 중수소(²H) 원자핵이 되고, 중수소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과 융합하여 헬륨 - 3(³He) 원자핵이 된다. 그리고 2개의 헬륨 - 3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 4(⁴He) 원자핵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식은 ㉢ D-T 핵융합이다. 이 방식에서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 수소(³H)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 4 원자핵이 된다. 중수소 원자핵과 삼

중 수소 원자핵을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원자핵들의 핵융합보다 반응 확률이 높고 질량 결손으로 전환되는 에너지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양 (+)의 전하를 띤 원자핵은 음(-)의 전하를 띤 전자와 전기적 인력에 의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원자핵이 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질을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 플라스마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척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척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마의 온도를 높여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핵융합 발전을 위한 핵융합로에서는 ① 플라스마를 1억 ℃ 이상으로 가열해서 핵융합의 확률을 높인다. 융합로에서 플라스마의 온도를 높인 이후에는 고온 상태를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플라스마는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장을 활용해서 플라스마가 벽에 닿지 않게 하여 고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고온의 플라스마를 높은 밀도로 최소 300초 이상 유지해야 한다.

2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한다.
- ②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척력이 작용하여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 ③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다.
- ④ 질량 -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 ⑤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의 크기는 그 원자핵을 다시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라늄 - 235 원자핵에 전자를 흡수시켜 핵분열을 일으킨다.
- ② 물이나 흑연을 감속체로 사용하여 중성자의 속도를 조절한다.
- ③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하여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라늄 -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 우라늄 - 235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로 나뉜다.
- ⑤ 우라늄 -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28.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설명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이 그림은 여러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철(${}^{56}_{26}\text{Fe}$)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죠?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을,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핵분열을 통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된답니다.

원자핵	질량수 (A)	핵자당 결합 에너지 (MeV)
${}^2_1\text{H}$	2	~1.1
${}^3_1\text{H}$	3	~2.0
${}^4_2\text{He}$	4	~7.1
${}^{56}_{26}\text{Fe}$	56	~8.8
${}^{235}_{92}\text{U}$	235	~7.6

※ 원자핵의 질량수(A)와 양성자 수(Z)는 원소 기호(X)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A_Z X$$

- ① 헬륨 - 4 원자핵은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화하겠군.
- ② 중수소 원자핵은 삼중 수소 원자핵과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더 안정된 상태이겠군.
- ③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26을 곱한 값과 같겠군.
- ④ 우라늄 - 235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MeV 이상이겠군.
- ⑤ 우라늄 - 235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과정에서 헬륨 - 4 원자핵의 개수는 늘어났다.
- ② ㉡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 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사용한다.
- ③ 헬륨 - 4 원자핵은 ㉡에서와 달리 ㉠에서는 헬륨 - 3 원자핵이 융합하여 생성된다.
- ④ ㉠과 ㉡에서는 모두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 ⑤ ㉡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 일어나기 위한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자핵이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
- ② 자기장을 발생시켜 플라즈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 ③ 원자핵이 척력을 이겨내고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④ 전자를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여 핵융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 ⑤ 원자핵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을 발생시켜 핵융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31~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

양철로 만든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수지는 얼음 소리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호수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이 되고

여윈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氷雪)이 눈부신 빛을 하다.

2

낡은 고향의 허리띠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고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노을은
나 어린 향수(鄉愁)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3

양상한 잠목림 사이로
한낮이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旗幅)을 떨어뜨리고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한마리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부끼며
서글픈 얼굴을 하고 눈독 위에 서 있다.
- 김광균, 「성호부근」 -

(나)

갈아놓은 눈고랑에 고인 물을 본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햇살이 번지고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
나의 얼굴이 들어 있다.
늘 홀로이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모두가 아름답다.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본래의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다.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내가
저 세상에 건너가 서 있거나 한 듯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

-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 -

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시선을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는 숫자로 구별된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면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겨울 호수와 그 부근의 풍경이 형상화되고, 이 과정에서 애상적 정서가 환기된다.

- ① '1'에서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으로 표현된 호수의 모습에 '양철'과 '얼음'이 환기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이 연결되면서 겨울 호수의 이미지가 형상화되고 있다.
- ② '1'에서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겨울 호수를 '홀로' 거니는 화자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2'의 '강물'과 '노을'은 '낡은 고향'과 '향수'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 ④ '2'의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3'의 '눈독 위에 서 있다'와 연결되면서,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이 드러내는 정서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1', '2', '3'에서는 각각 '조각난 빙설', '얼어붙은 강물', '양상한 잠목림'과 같은 시구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애상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33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과 ‘결에 거꾸로 누워 있는’ ‘산’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군.
- ②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모습을 ‘아름답다’고 한 것에서 화자가 물에 비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아프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에게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④ ‘늘 홀로’라고 생각했던 화자는 ‘나뭇가지’, ‘햇살’, ‘새 그림자’와 ‘나의 얼굴’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자신이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군.
- 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고 한 것에서, 화자가 물을 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두 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놀이 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풍문들을 말이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 엑스포에 가고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나를 엑스포에 보내주고, 놀이 공원에 함께 가 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에 고개 끄덕였을,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피로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이따금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 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엄마를 따라 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 누워 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은 라—처럼 놀랐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원만**’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나는 **헨델이 없는 헨델의 방**에서 음악을 했고, 엄마는 **베토헤같이 풀린 파마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다**. ㉠ **마침 동네에 음악 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타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다. 읍내서부터 먼길을 달려 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어쩐지 우리 삶의 질이 **한 뼉뼉 세련돼진 것** 같았다.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 ㉡ **원목 위에 양각된 우아한 넝쿨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린 레드 카펫**은 또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던지.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계들과 때깔부터 달랐다.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닌, ㉢ **만두 가게 안에** 놓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피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방에 놓였다. 안방은 주방을, 작은방은 홀을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오후 내 가게에 붙어 피아노를 연주했다. 올림 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멧을 부려 「**소녀의 기도**」나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와 같은 곡을 맡았다. 찜통에선 수증기가 폭폭 나고, 홀에서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우적 만두를 씹고 있는 공간에서,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두 찹시를 집어던지며 ‘**다 때려치우라 그래!**’ 소리쳤을 그런 연주를 말이다. 한번은 연주가 끝난 뒤 박수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적이 있다. 홀에서 웬 백인 남자가 **손뼉을 치며** ‘**윈더풀**’이라 외치고 있었다. 외국인과 나 사이에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수줍게 한마디 했다. ‘**땡큐……**’ 집 안에서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분히 날렸고, 건반을 짚은 손가락 아래로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빠의 빛보증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졌지만 엄마는 피아노만은 빼앗기지 않고 싶어 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된 ‘나’는, 피아노를 가지고 가 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게 된다.

언니의 표정은 뜨악했다. 외삼촌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나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엄마가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언니가 답답한 듯 말했다. “여기, ㉤ **반지하야.**” 나는 조그맣게 대꾸했다. “나도 알아.”

우리는 트럭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다봤다. ㉥ **그것은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끝까지 체면을 차리며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외삼촌의 트럭**은 길 한가운테를 막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목장갑을 꼈다. 외삼촌이 피아노의 한쪽 끝을, 언니와 내가 반대쪽을 잡았다. 외삼촌이 신호를 보냈다. 나는 깊은 숨을 쉰 뒤 피아노를 번쩍 들어 올렸다. 1980년대 산(産)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도시의 하늘 위로 비상**했다. 그 모습이 꽤 아름다워 하마터면 탄성을 지를 뻔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이동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땀이 났다. 사람들이 **우리를 흘깃거렸다**.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껴달라는 듯 경적을 울려댔다. 곧 건물 2층에 사는 집주인이 체육복 차림으로 내려왔다. 동글동글한 체구에, 아침 체조를 빼먹지 않을 것같이 생긴 50대 중반의 사내였다. 그는 집 앞에서 벌어진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피아노를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했다. 언니 역시 눈치껏 사내에게 인사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피아노가 천천히 머리를 디밀고 있었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우리 삶이 **세 뼉뼉 민망해지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외삼촌이 피아노를 놓친 모양이었다. 우당탕탕— 피아노가 계단을 미끄러져 나갔다. 언니와 나는 다급하게 피아노 다리를 붙잡았다. **윙—** 하는 공명감 사이로, 약기 속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피아노 넝쿨무늬가 고장 난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외삼촌의 안색을 살폈다. 외삼촌은 팬찮다는 신호를 보낸 뒤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외삼촌의 부상이나 피아노의 상태가 걱정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쿵—** 소리,

내가 처음 도착한 도시에 울려 퍼지는 그 사실적이고, 커다랗고, 노골적인 소리에 **얼굴이 붉어**졌다. 집주인은 어이없고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 언니와, 나와, 피아노와, 외삼촌과, 다시 피아노를 번갈아 쳐다봤다.

“학생.”

주인 남자가 언니를 불렀다. 언니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출구 쪽, 네모난 햇살 아래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언니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우리는 결국 관리비를 더 내고,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집주인을 돌려보냈다. 집주인은 돌아서며 한마디 했는데, 치지도 않을 피아노를 왜 갖고 있느냐는 거였다.

- 김애란, 「도도한 생활」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교체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인물의 관점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추측과 짐작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의 시각에서 지나간 일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다.
- ② ㉡은 외양에 대한 묘사를 나열하여 인물이 대상에서 받은 인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어울리지 않는 곳에 놓이게 된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썬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편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36. ㉠과 ㉢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란 트럭’에 의해 ㉠로 옮겨져 엄마를 기쁘게 했던 피아노는, ‘외삼촌의 트럭’에 의해 ㉢로 옮겨지면서 언니를 당황하게 했다.
- ② ㉠에서 ‘나’는 ‘손뼉을 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고, ㉢에서 ‘나’는 ‘우리를 흘깃거리’는 시선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③ ㉠은 우리 가족이 ‘생계와 주거’를 모두 해결해야 했던 공간이고, ㉢은 ‘나’와 언니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살아야 하는 공간이다.
- ④ ㉠에서 ‘나’가 누구라도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연주를 했던 피아노는 ㉢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쿵— 하는 소리’로 ‘나’의 ‘얼굴이 붉어’지게 했다.
- ⑤ ㉠에서 피아노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던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라는 표현은, ㉢로 피아노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안함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엄마가 내게 사 준 피아노는 엄마가 꿈꾸었던 ‘도도한 생활’의 상징으로, 부모로서 자녀가 누리기를 희망했던 삶의 기준을 의미한다. ‘나’는 성년이 되면서 엄마가 애써 마련해준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환경은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지금까지 ‘나’가 살아왔던 환경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윗글은 이러한 과정에서 인물이 겪는 각성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 ①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과 같은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은, 엄마가 자녀에게 마련해주고 싶었던 환경의 일부이겠군.
- ② ‘베토벤같이 풀린 파마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던 모습은, 피아노가 상징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엄마의 수고를 보여주는군.
- ③ ‘한 뺨뺨 세련돼진’ 느낌을 주던 피아노에서 ‘세 뺨뺨 민망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때문이겠군.
- ④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도시의 하늘 위로 비상’하는 모습에서 ‘나’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 온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군.
- ⑤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임을 깨달으면서, ‘나’는 엄마가 애써 마련해준 환경이 그리 견고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군.

[38~4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네
 [A]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ㄱ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제9수>

〔 당시(當時)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B]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ㄱ 이제야 돌아왔으니 만 데 마음 말으리

<제10수>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晝夜)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제11수>

- 이황, 「도산십이곡」 -

* 고인: 옛 성인(聖人), 성현.
 * 만고상청: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푸름.

(나)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간단하고 명료했다.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학자(이 안에는 물론 신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튀어나와 불필요한 접속사와 수식어로써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어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는 묻어 둔 채, 이미 뱉어 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뒤적거리며 이러쿵저러쿵 따지려 든다. 생동하던 언행은 이렇게 해서 지식의 울안에 갇히고 만다.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을 나는 신용하고 싶지 않다. 현대인들은 자기 행동은 없이 남의 흉내만을 내면서 살려는 데에 맹점이 있다. 사색이 따르지 않는 지식을, 행동이 없는 지식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아무리 바닥이 드러난 세상이기도, 진리를 사랑하고 실현해야 할 지식인들까지 곡학아세(曲學阿世)*와 비겁한 침묵으로써 처신하려 드니,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배반이다.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그 인형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무학(無學)〕이란 말이 있다.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학문에 대한 무용론도 아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취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않고 지식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 뜻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발달한 삶이 소중하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서는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인은 사이비요 위선자가 되고 만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다.

- 법정, 「인형과 인간」 -

* 곡학아세: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함.

3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지식인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3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B]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 변화의 기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앞 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여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40번과 41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문학 작품의 감상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에 제시된 대상이나 상황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와 (나)의 독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40.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9수에서는 ‘고인’과 ‘나’가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학문 수양이라는 ‘가던 길’을 매개로 ‘고인’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② (가)의 10수에서는 ‘당시에 가던 길’과 ‘탄 테’가 대비되면서 학문 수양 이외에 다른 것에는 힘을 쏟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가)의 11수에서는 ‘청산’과 ‘유수’의 공통적 속성이 ‘우리도 그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와 ‘자신의 문제는 묻어’ 두는 태도가 대비되면서 학문 수양에서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려야겠다는 다짐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나)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끌려가는 짐승’이 대비되면서 학문을 통해 배운 신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41. (나)의 [무학(無學)]의 의미를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하는 태도이다.
- ② 배움이 부족하여 지식을 인격과 별개로 보는 태도이다.
- ③ 많이 배웠으면서 배운 자취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이다.
- ④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된 태도이다.
- ⑤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발달한 태도이다.

[42~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설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가 바위 구멍에 숨어 사니 신체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혹은 벽에 기대어 눕기도 하는 중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만수산의 일개 토끼로서 간사한 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지. 그러나 두세 치밖엔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입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이후에 다시는 동해 가를 밟지도 말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도 말고 들베개에 깔이나 괴고 살아갈 뿐야.’

이때 홀연히 한 때의 검은 구름이 남쪽으로부터 오더니 조금 있다가 광풍이 일어나 소나기가 쏟아진다. 또 우레 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 조용하고 컴컴해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토끼가 크게 놀라,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

하고, 막 피하여 숨으려 할 제 뇌공이 바위 구멍으로 쳐들어오더니 토끼를 잡아가는데 날아가듯 빨라 잠깐 사이에 남천문 밖에 이르렀다.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 머리를 들고 보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 토끼가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에 기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들어와,

“동해용왕 광연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

한다. 토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용왕이 상제에게 고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지난 번에는 궤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고인 채 말없이 정신 나간 듯 있었더니 조금 이따가 전상에서 한 선관이 부른다.

“상제의 명이니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은 전하에 꿇어 앉고 토끼를 바라보면서 몹시 한스러워 했다. 한 선관이 지필묵을 두 사람 앞에 놓더니,

“상제의 명이니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한다. 용왕이 붓을 잡고 진술을 하는데 그 대강은 이러했다.

“엎드려 생각건대 소신은 모든 관리들의 장으로서 직책이 사해의 우두머리가 되어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는 변화를 부리고 하늘에 오르내려 비를 내립니다. 삼가 나라의 신을 받들어 아래로 수많은 백성을 훈육하고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왔습니다. 하온데 한 병이 깊이 들어 몸의 위태로움이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하고 백 가지 약이 효험이 없으니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삼신산이 아득히 먼니 선약을 어디서 구하며 편작이 이미 죽고 양의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디만 도사의 한마디 말을 듣고 만수산에서 토끼를 얻었으나 마침내 그 간교한 꾀에 빠져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 놓쳐 버렸으니 다만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와 뵈오니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듯합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제왕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본받아 소신의 병으로 죽게 된 목숨을 구해주소서. 엎드려 임금님께 비오니 가엾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토끼가 또한 진술하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소신은 만수산에서 낳고 만수산에서 자라 오로지 성명*을 산중에서 다하였을 뿐 세상에 출세함을 구하지 않았습디다.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 먹다 죽은 백이의 높은 절개를 본받고 동고에서 시를 읊은 도잠의 기풍을 따랐습디다. 아침에 구름 낀 산에 올라 고라니 사슴들과 짝하여 놀고 밤에는 월궁에서 상아*와 함께 약방아를 짚었습디다. 그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어찌하다 용왕에게 원망을 사서 결박하여 섬돌 아래 놓이니 절인 생선이 줄에 끼인 듯하고 전상에서 호령하니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어찌 대소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살려 몸을 보전함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더불어 죄 없이 죽게 됨은 속여서라도 살아남과 같지 않으니 오늘 뜻밖에 용왕의 비위를 거슬렀으니 어찌 감히 삶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까. 말을 이에 마치고자 하오니 엎드려 비옵건대 살피주소서.”

옥황이 다 읽고 나서 여러 신선들과 의논하니 일광노가 나와 말한다.

“두 사람이 진술한 바로 그 옳고 그름이 불을 보듯 환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다면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소서.”

옥황이 그 말이 옳다 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대체로 천지는 만물이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고 세월은 백대에 걸쳐 지나는 손님과 같다.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일**이오 사물의 항상 되는 일인즉 진실로 이에 초연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 했고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된다함을 듣지 못 했노라. 또 혹 병이 들어 일찍 죽는 자나 혹 상처를 입어 죽는 자는 모두 다 명이니 어찌 원혼이겠는가? 동해용왕 광연은 병이 들었으나 도리어 살고 만수산 토끼는 죄가 없으나 죽는다면 이는 마땅히 살 자가 죽는 것이다. 광연이 비록 살아날 약이 있다 하나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광연은 용궁으로 보내고 토끼는 세상으로 놓아주어 그 천명을 즐기게 함이 하늘의 뜻에 순응함이라.”

이에 다시 뇌공을 시켜 토끼를 만수산에 압송하니 토끼가 백배사레하며 가버렸다.

이날 용왕이 적혼공에게,

“옥황이 죄 없이 죽는다 하여 토끼를 보내주는 모양이니 너는 문 밖에 그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으리니 입조심을 하여 비밀이 새어나지 않도록 해라.”

하니 적혼공이,

“대왕의 입에서 나와 소신의 귀에 들어온 말을 어찌 아는 이가 있겠습니까?”

말을 마치자 우레 소리가 나고 광풍이 갑자기 일어 뇌공이 토끼를 압령하여 북쪽을 향하여 가니 날아가는 화살 같고 추상 같았다. 적혼공이 감히 손도 못 대고 손을 놓고 물러가니 용왕이 크게 탄식하며,

“하늘이 망해놓은 화이니 다시 바랄 게 없구나.”

하고 적혼공과 더불어 손을 잡고 통곡하며 돌아갔다.

- 작자 미상, 「토끼전」 -

- *소장: 중국 전국 시대의 소진과 장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구면: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 *양평: 중국 한나라 시대의 장양과 진평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성명: '목숨'이나 '생명'을 달리 이르는 말.
- *상아: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 향아.

[C]

4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수산에서 토끼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했다.
- ② 토끼는 백옥경에서 용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잡혀 온 이유를 알지 못했다.
- ③ 만수산에서 토끼는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 ④ 토끼는 용궁에서 만수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
- ⑤ 만수산에서 지내던 토끼는 용궁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4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자신의 내력을 요약하며 진술을 시작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제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B]는 제안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이, [B]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며 진술을 마무리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 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 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용왕과 토끼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지위의 우열보다는 진술의 우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 판결의 내용은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상제의 명이니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라는 말에서, 송사 설화의 모티프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꿇어 앉아 함께 '처분을 기다리'는 것에서, 용왕과 토끼가 재판 당사자로서 대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소서.'라는 일광노의 말에서, 토끼의 진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일'이라는 말에서, 옥황이 판결을 망설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⑤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라는 말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작가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45. [C]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적혼공의 말을 통해 앞서 일어난 사건을 평가하고 있다.
- ② 용왕의 시도가 실패하였음을 보여 주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용왕의 탄식을 통해 용왕과 옥황 간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④ 뇌공에 의해 공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용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적혼공의 반응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